

# 지지부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험협회장 “적극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법안 국회통과 위해 지속 건의”  
**정지원 손해보협회장**  
“관련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 후보도 언급... 기대감 ↑



정희수 생보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협회장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시 예상 효과〉

소비자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했던 보험금 청구 가능
의료계	진료비·진단서 등 대량의 종이문서 발급 자동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보험사	실손 보험금 심사 효율화, 서류보관비용 절감 등
ESG 측면	연간 약 4억장의 종이 절감 → 연간 나무 4만그루 및 산림 30만평 보존 효과

/생보협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희수 생보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협회장이 신년 사업계획으로 실손보험 청구 불편 해소를 거듭 강조하면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최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년 사업계획에 대해 밝혔다.

◆속원 과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은 가입자 3900만명(2020년 기준), 연간 청구건수 1억건을 돌파하며 ‘제2의 국민 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지속여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허위·과잉진료로 인한 손해를 약화 및 이로 인한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 등 다양한 문제가 이어지면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실손보험의 소비자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

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해서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지원 손해보협회장도 “신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험가입·청구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했다.

◆대선 후보까지 언급... ‘올해는 문턱 넘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이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8.6%를 차지했다.

다만 의료업계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환자의 진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영수증, 세부 명세서 등의 요청 서류에서 출발해 향후 진단서, 수술 기록지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 환자의 정보관리권을 지킬 방법이라는 것.

하지만 두 보험협회장에 이어 금융당국과 대선 후보 역시 공약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언급하며 기대감

이 모아는 모습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의료시장에서 소비자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자적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민간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료기관과 개별적인 협상을 맺고 자체적으로 청구전산화를 추진해 왔으나, 의료기관의 참여가 적어 실질적인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방식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시행 중인 해외 사례와 같이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금리 우대 ‘NH기업성장론’

NH농협은행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NH기업성장론’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NH기업성장론은 농협은행에서 산업별 위험수준에 따라 개별산업에 부여한 산업관리등급, 하나로기업고객등급 등에 따라 대출한도를 우대하고 매출액 및 누적수주계약 증가, 시설자금 중 자기자금비중 등에 따라 최대 1.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상환 및 금리상승부담 경감을 위해 혼합상환방식을 도입하는 등 상환방법을 다양화 했고 총 50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금리 변동주기를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에 따라 NH기업경영컨설팅 및 농식품 기업컨설팅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소안 기자 think@

**하나은행**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수상

하나은행은 지난 19일 세계적 금융·경제 전문매체 ‘글로벌 파이낸스지’가 선정한 ‘2022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하나은행은 통산 21회 ‘글로벌 파이낸스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수상했다. 무역금융 분야 시장 지배력 및 상품·서비스 품질, 기술력 등 고른 부문의 탁월한 역량을 국제적·지속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BAFT’ 온라인 포럼 플랫폼으로 진행됐으며 전세계 금융전문가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및 설문결과를 토대로 수상자가 선정됐다.

글로벌 파이낸스지 관계자는 “전 세계 106개국 1152개 해외은행들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해 국내 최대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무역금융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통해 무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나유리 기자

**BNK부산은행**  
비대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BNK부산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지방은행에서는 유일하게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사업자등록증이나 각종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스크래핑(모바일 자동 서류제출)을 통해 모바일뱅킹 앱(App)에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외에도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중 고신용자(NICE CB 920점 이상)는 부산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대출한도 1000만원, 1년간 고정금리 연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신용자(NICE CB 745~919점)도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KB국민은행, 亞太지역 거점 확보... 싱가포르 지점 개점

기업·투자금융 등 업무 수행  
24시간 대응 인프라 체계 구축

KB국민은행이 아시아 경제·금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지점을 설립했다.

개점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싱가포르와 한국을 동시 생중계하는 온·오프라인 행사로 지난 19일 진행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최훈 대사를 비롯한 니콜라스 마르퀴에 IFC 싱가포르 대표, 현지 금융기관과 주요 관계사가 참석했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은행장 및 임직원들이 동시에 참여해 싱가포르 진출을 축하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



(왼쪽부터) 조남훈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 이상현 CIB고객그룹 대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영기 KB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 하정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으로부터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에서도 예비인가 취득 후 약 8개월만에 지점 설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싱가포르지점 본인가는 홀세일뱅크 라이선스(Wholesale Bank License)로 현지 통화 기반의 리테일 업무를 제외한 기업금융, 투자금융, 자본시장 관련 업무는 물론 증권업 일부까지 수행한다.

특히, 아시아 최대 금융허브인 싱가포르 금융시장의 자본시장 부문에 진출함으로써 런던과 뉴욕에 이어 24시간 대응 가능한 자본시장 인프라 체계를 구축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KB국민은행 싱가포르지점 개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185만원’ 압류 방지

주공공,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자 모든 고객으로 확대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용 압류 방지통장

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도 압류방

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와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수령은행은 KB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수협·지역농·축협 등 13개 은행이다.

/나유리 기자